

魯迅과 소통

김봉연 *

- I. 들어가며
- II. '囫'의 형성과 접충법
- III. 소통의 시도- 對話, '打囫'의 방식
 - 1. 魯迅식의 소통 - 對話의 시도
 - 2. '打囫'- 막혔던 것을 통하게 하는 것
- IV. 나오며- '囫'에 대한 복수

I. 들어가며

魯迅은 중국 대중으로부터 지배자에게 대항하는 역동적인 힘을 기대하고 가너린 혁명의 불꽃을 보아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평생토록 중국인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 병폐를 찾아내고 드러냈으며 그것에 대한 발본색원을 주장하였다. 이른바 '무언가를 에워싸고 멍하게 구경만 하고 있는 중국인들'로 상징되는 魯迅의 국민성에 대한 비판은 단순히 당시 사람들에 대한 공시적 비판만이 아니다. 즉 국민성을 형성하게 된 그 근원을 소급해 나가면 전통적으로 하나의 중심을 향해있는 중국적 사상이나 문화전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음을 보아낸 것이다. 예수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이른바 '選民사상'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정신적 기반이 되고 있는 것처럼, 중국은 '中華'라는 강력한 무기로 古來로 이방인들을 오랑캐라 여기며 자신들만의 세계를 구축해왔다. 자신들만의 세계 속에서 살아왔던 중국인, 그들은 자신만이 최고라 생각하고 大國 속에서 살고 있다는 안도감과 언제나 堯舜의 태평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전통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中華라는 울타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계를 인식함에 있어 자기들의 모습만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고, 타인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나와 타인의 관계 속에서 형성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부정된다. 이것은 다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제대로 된 구성원으로 설 수 없게 되고 급기야는 사회적 인간으로 존립하지 못하고 고립되어 사람들의 인식 밖으로 떨어져 나가게 된다.

내가 타인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는 바로 내 생각과 사고와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말(글)이다. 우리는 말로서 타인과의사를 소통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타인과 관계를 맺게 된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사회를 형성하게 되고 그 일원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전통적으로 ‘大一統’ 사상이나 강력한 中華의 의식 속에 갇혀서 타자의 존재를 인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없었다.¹⁾ 강력한 하나에 둘러싸여 나머지는 그 존재 밖으로 밀어내었던 중국의 사상은 이른바 ‘圈’으로 지칭할 수 있다. 그것은 可視적 산물로서 萬里長城이나 1949년 이후 중국의 비공산권에 대한 배타적 정책을 지칭했던 ‘竹의 장막’ 등으로 형상화된다. 타자와 소통하지 않으려 하고 자신만의 철용성에 갇혀 그저 자신만이 최고라고 외쳐대는 소리는 그 울림이 없게 마련이다. 萬里長城으로 상징되는 중국이라는 현실은 魯迅에게도 개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나는 항상 주위가 만리장성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것 같다. 이 만리장성을 만들고 있는 재료는 오래된 돌과 새롭게 보충되어진 돌이다. 이 두 가지는 한꺼번에 합해져 성벽을 만들고 있으며 사람들을 포위하고 있다. 언제쯤에서야 만리장성에 새로운 돌을 보충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 위대하고도 저주스러운 만리장성!”²⁾ 魯迅의 인

* 숭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1) 중국의 文化大革命은 의사소통을 전적으로 차단한 예라 할 수 있다. 중심을 지향하는 중국의 전통적 사상은 강력한 中原문화속에서 儒敎중심의 문화를 구축해왔다. 1980년대 유행하기 시작한 尋根사조는 이러한 儒敎중심적인 一元的문화에 의해 사장되었던 변방의 문화나 道家중심의 문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圈속에서 탈출하려는 일면을 보인다.

2) “我總覺得周圍有長城圍繞。這長城的構成材料，是舊有的古磚和補添的新磚。兩種

식맥락 속에서 중국현실은 反전통의 기치아래 全力으로 매진해야 하지만, 세계는 만리장성에 의해 에워싸여져 있음이다. 새로운 돌이 한참이나 오래된 돌을 빼내어도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 중국의 현실 속에서 魯迅은 다시금 전통의 오래된 망령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그것을 일시에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길 원하지만 그것 또한 불가능한 일이다. ‘위대하지만 저주스러운 만리장성’은 魯迅이 자신의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태도와도 일치하고 있다.

魯迅이 중국의 국민성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던 바도 이러한 ‘圜’³⁾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중국과 중국인이다. 특히 ‘圜’의 테두리를 만들고 있는 중국인들, 구경꾼으로 밖에 존재하지 못하는 중국인들에 대한 魯迅의 비판은 평생을 두고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魯迅 자신이 바로 鐵房이라는 ‘圜’속에서 뛰쳐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상은 더욱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魯迅의 창작활동 중에서 특히 ‘圜’과 소통의 의미에 중점을 두고 창작활동이 진행될수록 그의 작품 속의 ‘圜’ 또한 확장되고 있음을 밝히며, 이러한 ‘圜’을 타파하기 위한 시도로써 소통의 의미를 살필 것이다. 소통은 말의 통합, 즉 對話의 관점에 그 방점을 둔다.⁴⁾ 아울러 ‘圜’에 대한 魯迅의 대항방식에 대한 양상까지 살펴보는 것이 본 글의 목표이다.

II. ‘圜’의 형성과 점층법

圜은 본래 ‘가축을 기르는 우리’를 나타내는 말이다.⁵⁾ 原義와 같은 연상선상에 있는 글자인 圜, 牢, 廐⁶⁾의 字形을 보면 역시 안에 있는 글자의 밖

東西聯爲一氣造成了城壁, 將人們包圍// 何時才不給長城添新磚呢? 這偉大而可詛呪的長城!” 「長城」, 『華蓋集』, 『魯迅全集』3권,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3년 제1판, 58쪽. 이후 『魯迅全集』의 판본은 이와 같음.

3)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圜’이라는 용어는 백원담, 「魯迅의 ‘字’와 ‘宙」, (韓國中國現代文學學會, 第7次 國際學術大會 論文集,)에서 차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4) 魯迅의 작품을 소통이라는 단어로 아우른 논문으로 이주노, 「魯迅의 『狂人日記』 다시 읽기」(『中語中文學』, 30호, 2002)가 있다.

5) 『說文』, “養畜之閑也”, 여기서는 王鳳陽 著, 『古辭辨』,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1993. 195쪽에서 재인용.

의 부수(冂, 冃, 冂)들 역시 무언가를 에워싸고 막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있다. 짐승을 가두고 기른다는 의미 속에는 가두어 놓고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사방에 막힌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 뜻을 상징하고 있는 열거된 글자들은 이미 부수로서 그 함의를 나타내주고 있다. 囿이 가지고 있는 다른 함의 중 하나는 ‘둥근 모양(環形)’이다. 이는 ‘태두리를 그어서 그 안에 무언가를 가두어 놓는다’라는 점에서 앞의 뜻과도 맥이 닿는다고 할 수 있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일련의 글자들(圓, 園, 園)⁷⁾ 역시 ‘둥근모양’이라는 뜻으로 ‘冂’의 부수를 가지고 있다.

막힌 공간을 상징하고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기르고 구속한다는 의미에서 囿은 만리장성 속의 중국인의 이미지로 대두된다. 囿의 冂안에 갇힌 卷은 사람이 무릎을 꿇었을 때의 구부린 모습을 형상화한다.⁸⁾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바, 앞으로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겠다는 의미가 된다. 즉 한 개인은 상대방에게 종속되어 자신의 목소리는 잃어버린 채 남에게 자신의 生死權을 상대방에게 넘겨주겠다는 이야기다. 유교적 문화 속에서 한 사람이 무릎꿇는 대상은 스승이나 父母 혹은 나보다 長者들이다. 이들 앞에서는 한 개인은 그들에 의해 훈화되고 길러진다. 囿의 本義대로 풀어내자면 이른바 ‘사육되는’ 것이다. 전통과 관습으로 태두리 쳐진 공간 속에서 문화의 정통성으로 길러지는 인간들과 세대를 거치면서 이어지는 태두리 고리들은 하나의 유전인자처럼 체내에 축적, 교묘하게 세습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민족성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인을 특징짓는 대명사가 되어 버린다. 魯迅이 창작활동을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심리구조’에 침전되어 지금까지 내려온 정신적 유전인자를 바꾸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른바 ‘민족성’으로 불리는 한 민족의 특징적 사유방식이나 가치체계- 兪의 어휘를 빌리자면 ‘집단적 무의식’-은 可視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난하고도 도저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魯迅이 창작활동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 또한 중국인의 이러한 囿의 유전자 때문이었다. 그는 “가운데 한 사람이 묶여 있고 주위엔 많은 사람

6) 王鳳陽의 앞의 책에 의거함.

7) 『漢語大詞典』, 1993년 5월, 제3차. 648-649쪽.

8) 백원담, 앞의 논문, 164쪽.

들이 둘러서 있는 장면이었다. 모두 건장한 체격이긴 했지만 낮이 빠진 듯 멍청한 표정들이었다.…둘러선 사람들은 이 본보기가 되는 큰일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 9)이라고 말했다. 동족이 타인에 의해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런 느낌 없이 멍청하니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魯迅은 罔의 유전자를 간파하게 된다. 罔을 형성하면서 구경하고 있는 중국인들¹⁰⁾에게 태생처럼 쫓아다니는 또 다른 유전자 ‘癱木’ 함 또한 魯迅의 공격대상이 된다. 그것은 ‘鐵房의 비유’로 일컬어지는 그의 말에서 짐작할 수 있는 바이다. 아무런 저항없이 죽어가는 중국인들의 癱木함을 깨뜨리는 것은 鐵房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소용없는 일임을 체념어린 말로 읊조리고 있는 魯迅은, 이와 동시에 鐵房에 갇힌 자기를 상징함으로써 罔의 다른 형태를 그려내고 있다.

鐵房은 魯迅 자신을 가두고 있는 罔인 동시에 중국인들이 지각없이 살아가면서 죽어가고 있는 전체 중국으로 상징하고 있다. 그러나 희망이라는 말로서 그 鐵房을 깨뜨리고 나오는 魯迅은 전통과 관습에 무릎꿇고 있었던 테두리를 깨뜨림, 즉 ‘打罔’하고 있는 자신을 보여줌으로써 그 희미한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다. 鐵房에 갇혔던 사람이 죽어가는 이유는 공기가 드나들 수 있는 공간(창문)이 없었기 때문이다. 공기의 드나들, 소통의 공간, 무언가가 왕래하고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은 鐵房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출해 내는 곳으로 만들고 있다. 罔에 작은 구멍을 뚫어 무릎꿇은 다리를 가부좌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공간을 상징할 수 있는 慧眼을 魯迅은 정치하게 보아내고 있는 것이다.

鐵房으로 상징되던 중국의 罔의 세계는 「狂人日記」에 들어서면 ‘狼子村’이라는 가공의 마을로서 대두된다. 「狂人日記」는 그 자체가 액자식 구조로서 이미 罔의 세계가 상징되어 있으며¹¹⁾, 狂人の 눈으로 본 마을은 이미 오천년 食人の 역사 속에 매몰된 철저한 중국적 罔의 세계이다. 전통에 세

9) “一個綁在中間，許多站在左右，一樣是強壯的體格，而顯出癱木的神情。…而圍着的便是來賞鑑這示衆的盛舉的人們。” 『吶喊·自序』

10) 구경꾼과 그 속에서 구경당하고 있는 한 사람의 형상에 대한 고찰은 유중하, 『魯迅前期文學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3/ 김진공, 「示衆, 三突出, 희생양」, 『中國文學』, 37호, 2002/ 심혜영, 「조리돌림(示衆)의 세계에 관한 小考-『彷徨』기 작가의 현실인식을 중심으로」, 『中國現代文學』 7호, 1993. 등을 참고.

11) 백원담, 앞의 논문, 162-163쪽.

뇌당한 사람들만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食人の 행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에 의문을 제기하는 狂人の 외침은 허공에 떠다닐 뿐이다. 食人の 역사 속에서 자기 자신도 피해자이며, 또한 가해자 일 수 있는 혐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마을의 食人は 계속 될 것이고, 그것을 자행하는 마을의 풍속 속에서, 圈의 역사도 그대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 狂人이 “들보와 서까래가 내 머리 위에서 흔들렸다. 잠시동안 떨고 있더니 갑자기 내 몸 위를 덮쳤다.”¹²⁾라고 인식하는 것도 자신이 중국적 전통의 세계, 즉 圈의 세계에 함몰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다. 狂人の 존재방식은 바로 이러한 圈의 세계에서 벗어나 사람, 즉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과 사람들 속에서 狂人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정상적이지 않은 사회에 매몰되어 세뇌된 방식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려는 狂人の 생존양태는 마을에서 격리되고 내버려져도 그의 외침 속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狂人日記」이외에 『吶喊』속의 두 소설, 「葯」과 「示衆」은 본격적으로 圈의 세계를 ‘구경꾼과 그 속의 혁명가’라는 구도로 보여주고 있다. 「葯」에서 주인공은 아들의 폐병을 고치기 위해 사람의 피를 묻힌 만두를 먹인다. 그것은 마을 전체에 떠돌던 소문이었다. 주인공이 아들에게 먹일 피 묻은 만두를 구하기 위해 가는 장면, 그 속에서 혁명가의 처형을 암시하는 장면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중국인은 여전히 圈을 형성하고 있다.

이윽고 다시 몇몇 병정들이 저쪽에서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제복의 가슴과 등에 희고 큰 둥근 표찰이 멀리서도 또렷이 보였다. 한바탕 발걸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순식간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지나갔다. 두세 명씩 서성대던 사람들도 눈 깜짝할 사이에 한데 어울려 밀물처럼 앞으로 몰려갔는데 삼거리에 이르러 반원형으로 빙 둘러섰다.¹³⁾

여기서 병정들의 가슴에 붙은 둥근 표찰은 중국인들이 만들어낸 圈과

12) “橫梁和椽子都在頭上發抖，抖了一會，就大起來，堆在我身上。” 「狂人日記」, 『魯迅小說全集』, 沈陽: 河南人民出版社: 1994. 12쪽. 본 글의 魯迅의 소설은 모두 이곳에서 인용한 것으로, 이하 쪽수만 표시함.

13) “沒有多久，又見幾個兵，在那邊走動；衣服前後的一個大白圓圈，遠地里也看得清楚……一陣脚步聲響，一眨眼已經擁過了一大簇人。那三三兩兩的人，也忽然合作一堆，潮一般向前趕；將到丁字街口，便突然立住，簇成一個半圓。” 『吶喊·葯』, 20쪽.

오버랩된다. 주인공은 지금 囹圄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囹圄에서 서 있는 그는 밀물처럼 밀려든 중국인 속에서도 병정들 가슴에 圓圈을 분명하게 보아낸다. 囹圄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囹, 그 세계는 혁명가를 바로보지 못하는 전근대적 중국이 만들어낸 것이다. 혁명가를 죽이는 또 다른 전근대적 중국의 세계이다. 주인공의 눈 속에 혁명가가 죽음으로서 내뿜은 피에 만두를 찍어 먹는 중국인은 여전히 食人의 역사 속에 무릎꿇고 있다. 그 혁명가는 ‘이 滿나라의 천하는 우리들 모두의 것이다’ 라는 말로서 근대적 중국을 지향했던 사람이었지만, 이러한 인물들은 당시 중국적 맥락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같은 중국인이 만들어낸 囹圄속에서 혁명가는 죽고, 죽은 혁명가의 피를 찍어 먹는 상황 속에서 혁명은 차치하고서도 죽음마저 무의미화 되버린다.

「示衆」 또한 밀짚모자에 가리워진 죄수를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온 사람들, 구경하기 좋은 곳을 찾기 위해 서로 몸싸움하는 모습, 자기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 애쓰는 모습, 그리고 어떻게든 보려고 빈틈을 노리는 사람들 등 각양각색의 구경꾼들을 집합시켜서 세겹, 네겹의 囹을 만들어낸다. “순식간에 구경꾼들이 몰려와 주위를 반원형으로 가득 둘러싼” 14) 중국인들은 “꽤나무 누에벌레들이 담벼락을 기어오르듯, 개미들이 마른 생선대가리를 떠메고 가는 듯” 15)한 모습으로 보여진다. 제목에서부터 囹을 상징한 魯迅은 “인력거꾼이 할멈을 밀친다는 것이 어린애를 밖으로 밀어놓았다. 어린애는 곧 몸을 뒤틀면서, 사람들이 둘러싼 밖으로 나가자며 떼를 썼다.” 16)라는 말로서 囹圄에 존재하려는 아이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지만, 늙은 할멈이 그 아이를 죄수를 향해 돌려놓으며 얼마나 재미있는지 보라고 말함으로서 여전히 老세대가 新세대를 囹圄속에 매몰시키려는 당시 중국을 말하고 있다. 囹圄속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계속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고, 구경꾼들은 구경거리를 계속하여 만들어내며 그것을 무의미하게 구경하는 자가 있는 한 중국에는 打囹의 여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魯迅은 1919년 발표된 현대시 『自言白語』의 ‘古城’은 ‘城’으로 상징되는 囹의 세계를 만들어낸다.

14) “刹時間，也就圍滿了大半圈的看客。” 『彷徨·示衆』 188쪽.

15) “如槐蠶爬上牆壁，如螞蟻要扛糞頭” 『野草·復讎其一』

16) “車夫一推，却正推在孩子上；孩子就扭轉身去，向着圈外，嚷着要回去了。” 190쪽.

당신은 저기가 平地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사실 하나의 모래산이지요. 모래산 안에는 古城이 있어요. 이 古城 안에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고성은 그리 크지 않아요. 하지만 아주 높습니다. 단지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은 水門이지요./ 검푸른 빛의 짙은 안개가 黃沙를 말아올려 파도처럼 왔습니다./ 소년이 말했습니다. “모래가 온다. 살 수가 없게 되었다. 아이들은 빨리 도망가라.” / 노인이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아무 일 없어.” / 이렇게 하여 삼년 십이개월 하고도 팔일이 지났습니다./ 소년이 말했습니다. “모래가 높이 쌓였다. 살 수가 없게 되었다. 아이들은 빨리 도망가라.” 17)

詩에서는 ‘모래산에 둘러싸여 있는 古城’ 과 ‘古城에 둘러 싸여져 있는 세 사람’ 의 두 가지 圈의 형태가 상징된다. 孔子의 ‘三人行, 必有我師’ 라는 말을 연상시키는 세 사람의 배치는 쉽게 소년이 중간자임을 감지하게 한다. 즉 중간자로서 대두되는 소년은 圈의 세계를 빠져나오려는 인물로서 안주하려는 노인의 세계와 충돌을 일으킨다. 노인으로 상징되는 전통은 이미 중국인들의 사고 속에 침전되었고 누적되어 존재해오고 있다. 이러한 영향을 계속 받아온 구세대들에게 古城에서 나간다는 것은 자신이 배태되고 살아온 땅에 대한 거부를 의미한다. 자신의 세계가 모래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모래가 쌓인다는 것이 그들의 인식 속에서는 문제시 될 수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근대적 전통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자신의 의식이나 감정 속에 그것이 자연스레 스며들게 됐을 때,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과는 대치될 수 밖에 없다. 圈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圈속에서의 자족함과 무변화로 掩蔽된 태평시대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애써 이를 파괴하고 부정하는 것은 태평시대를 깨뜨리는 반역자의 행위일 뿐이다. 소년의 末路를 詩에서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詩 全篇에서 쉽게 그의 죽음을 알아볼 수 있다. 중간자로 상징되는 소년

17) “你以爲那邊是一片平地嗎? 不是的. 其實是一座沙山, 沙山里面是一座古城. 這古城里, 一直從前住着三個人./ 古城不很大, 却很高. 只有一個門, 門是一個閘./ 靑鉛色的濃霧, 卷着黃沙, 波濤一般的走./ 少年說, “沙來了. 活不成了. 孩子快逃罷.” / 老頭子說, “胡說, 沒有的事.” / 這樣的過了三年和十二個月另八天./ 少年說, “沙積高了, 活不成了./ 孩子快逃罷.” 老頭子說, “胡說, 沒有的事.” / 少年上開閘, 可是重了. 因爲上面積了許多沙了.” 『集外集拾遺補編』, 『魯迅全集』8권, 92쪽.

의 죽음이 圈밖으로 나가려는 일부 선각자들의 외로운 싸움의 결과로 보이는 것은 이전 작품에 등장하는 ‘打圈’하려는 이들의 운명과도 통하고 있음이다.

이어서 魯迅은 『故事新編·補天』에서 다시 圈을 만들어낸다. 평생 받들고 있는 현실 속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위대한 점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현실모순을 폭로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과거 속에서 찾는 방법 또한 그 여정에 있어 문학적 기본골격의 如常함을 보여주고 있다. 「補天」은 ‘가운데 한 사람이 있고 그를 에워싸고 있는 나머지 사람들’, 즉 圈의 구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 구도 속에 魯迅은 그 틀 밖에 서서 그 구도를 관찰하여 이야기해주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나 魯迅은 ‘중심에 서 있는 한 사람’임을 자처했기 때문에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나머지 사람들, 구경꾼에 대한 혹독한 비난을 숨기지 않는다. 魯迅은 중국인들의 구경꾼 심리를 몸서리칠 만큼 싫어했지만, 자신도 그러한 중국인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망각하지 않았고, 전근대를 벗어나 근대로 향하기를 갈망했지만, 자신이 배태된 곳 또한 전근대였다는 것을 잊어버릴 수 없었음을 통렬히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破知가 뛰어났던 魯迅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 또한 충분히 가능했던 일이다.

아울러 「補天」은 말이 통하지 않고 의미가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창조자의 절망스러움을 나타내주고 있다. 창조자의 절망은 결국 그를 에워싸고 있었던 피조물로 인한 것이었다. 중국의 신화를 통하여 圈의 세계를 꼬집어 내는 魯迅은 房으로 시작하여 村-城-國이라는 일련의 확장된 공간으로 圈¹⁸⁾을 드러내주고 있다. 이것은 결국 중국 전체가 圈의 세계임을 알려주고 있는 셈이다.

18) 魯迅은 죽은 후에도 이러한 圈의 세계를 인식한다. 『野草·死後』：“我被翻了幾個轉身，便覺得向上一舉，又往下一沉；又聽得蓋了蓋，釘了釘。但是，奇怪，只釘了兩個。難道這裏的棺材釘，是只釘兩個的么？”// 我想：這回是六面碰壁，外加釘子。真是完全失敗，嗚呼哀哉了！……”

Ⅲ. 소통의 시도- 對話, ‘打圈’의 방식

1. 魯迅식의 소통 - 對話의 시도

疏通은 막혀있는 것을 열어주고 통하게 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의미를 말하는 것과 연관시킨다면, 말하는 작업을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남에게 전달한다는 뜻으로 새길 수 있다. 소통에는 이미 타자를 상정하고 있다. 즉 자신과 타자의 사고방식상의 상이점을 이해하게 하고 양자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간극을 메워주는 일이 그것이다. 魯迅은 이러한 소통의 의미에 대해 「狂人日記」에서 그 초보적인 단계를 말하고 있다. 작품 속에서 狂人は 끊임없이 사람들을 의심하고 그 행동에 대해 끊임없이 말을 건다. 말을 건다는 것은 상대방과의 對話를 이끌어 내는 것으로 타자와 나와 소통을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狂人을 狂人으로 여김으로써 그와의 대화 자체를 거부한다. 마을에서 狂人의 말을 미치광이의 지껄임으로 존재할 뿐이다. 狂人은 일기형식을 빌어 자기 말을 하고 있다. 일기라는 것은 누군가를 상정하고 쓰는 것이 아님을 상기해 볼 때, 그의 말들은 모두 獨白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작품의 제목에서부터 대화가 부재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주고 있는 魯迅이다.

그러나 狂人은 자기가 보고 생각한 바를 獨白의 형식을 빌어서라도 말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대화로써는 존재하지 않지만 혼잣말이라도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출할 수 있다는 점은 狂人이 가질 수 있는 소통의 크나큰 의미가 된다. 아울러 작품은 광인과 타자와의 말의 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내게 무슨 원한이 있어 아이들조차 이러는 것일까 하고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어 큰 소리로 “이 놈들, 말해봐”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아이들은 달아나버렸다”(2장), “내가 곁에서 몇 마디 말참견을 했더니 소작인과 큰 형이 나를 흘긋흘긋 쳐다보는 것이었다”(3장), “나는 “라오우, 내 답답해서 그러는데 형님께 마당을 거닐고 싶다고 말해 주게” 내가 이렇게 말하자 라오우는 대답도 하지 않고 나가더니, 한참 후에 다시 와서 문을 열어주었다”(4장),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옳은 일인가? 그는 여전히 웃으면서 대답했다. “흉년도 아닌데 왜

사람을 잡아먹습니까”,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을 몰아서 무엇 하려고 그러십니까? 당신은 참……농담도 잘하십니다.……오늘은 날씨가 참 좋군요””, “이전부터 그래왔다면 그럼 옳은 일인가?” “난 당신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튼 당신은 그런 소릴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8장)¹⁹⁾ 작품 첫머리에서 狂人の 말을 들은 아이들은 달아나버렸고 狂人の 말참견을 들은 사람들은 흘깃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다. 중요한 것은 작품이 진행될수록 마을 사람들이 狂人の 말에 대해 몸으로든 말로든 반응한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 제대로 된 반응, 뜬금없이 ‘날씨가 좋다’ 라고 하면서 말을 돌리는 사나이의 태도²⁰⁾는 제대로 된 대화의 부재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 후에 狂人の 집요한 추궁에 결국 “그것은 잘못된 것” 이라는 자신의 말을 한다. 개인의 발화가 성공할 것 같은 분위기는 그러나 이후에 狂人이 형에게 食人이 잘못된 것이라고 외치라는 말에, 형이 그것을 미치광이의 말이라고 치부하면서 狂人の 말걸기가 결국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魯迅 자신은 鐵房에서 뛰쳐나옴으로 완전한 소통을 이룩했다. 그러나 狂人은 계속 부르짖음으로써 소통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狂人の 소통은 대화로써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獨白으로 전락한다. 알아 들어주는 이 없는 말은 공허할 뿐이다. 이윽고 「古城」이 실려 있는 시집의 제목을 『白言白語』라고 한 魯迅은 이제 獨白조차 하지 않고 스스로 ‘중얼거림’이라는 말로 소통을 거부한다. 그와 동시에 魯迅은 소년의 죽음, 곧 중간자의 죽음을 말한다. 소통을 할 수 없는 바, 모든 소통경로를 차단하는 魯迅이다.

타자와 대화로 소통을 시도했던 魯迅은 독백이나 중얼거림으로 그 모든

19) “我想我同小孩子有什麼仇，他也這樣。忍不住大聲說，“你告訴我！”他們可就跑了。”(2장), 4쪽. / “我插了一句嘴，佃戶和大哥便都看我幾眼。”(3장), 5쪽./ “我說，“老五，對大哥說，我悶得慌，想到園里走走。”老五不答應，走了；停一會，可就來開了門。”(4장), 6쪽./ “吃人的事，對麼？”他仍然笑着說，“不是荒年，怎麼會吃人？”，“對麼？” “這等事問他什麼。你真會……說笑話。……今天天氣很好。”，“從來如此，便多麼？”，“我不同你講這些道理，總之你不該說，你說便是你錯！”(8장)/ 9쪽.

20) 이렇듯 말 돌리는 법은 『野草·立論』에서도 보인다. “那么，老師，我得怎麼說呢？”// “那么，你得說：‘啊呀！這孩子啊！您瞧！，多她……，啊唷！哈哈！Hehe! he, hehehe!’”

시도들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말한다. 이옥고 『故事新編·補天』에서는 창조자 女媧와 피조물 ‘자기와 거의 비슷하게 생긴 작은 것’ 들을 등장시켜 또 다른 소통을 시도한다. 女媧는 피조물들이 웃는 것을 보고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창조에 대한 의욕을 더욱 고취한다. 그러나 이내 그것들이 자신을 에워싸고 알 수 없는 소리들을 지껄이는 것에 대해 싫증을 느낀다. 女媧가 만든 피조물들은 태어날 때부터 제대로 된 말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Nga! Nga!’ , ‘Akon Agon’ 의미없는 말을 할 뿐이었다. 그녀는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면서 끊임없이 작은 것들을 만들어내다가 이내 지쳐간다. 창조의 욕구를 일시에 무너뜨린 것은 피조물들이 자신을 에워싸고 시끄럽게 떠들어 대는 것이었다.²¹⁾ 중심에 서 있는 자를 향해 초점없이 던지는 피조물들의 시선은 창조자를 창조자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구경하는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다. 즉 창조자는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피조물들에게 보여지는 존재로 전락되는 것이다. 피조물들에게 인식되지 못하는 창조자는 그 의미를 상실한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지 못하는 영웅은 그 존재의 의미는 없어진다. 영웅의 가치는 일반화 되고, 그의 업적은 그 의미가 퇴색되면서 영웅은 그저 보여지기 위한 존재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되면 영웅은 더 이상 영웅이 아니다. 魯迅은 중심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보고만 있는 중국인의 시선, 그 속에 본질을 파악하려는 일말의 의도도 보이지 않는 그들의 눈길에 권태로움을 느꼈을 것이다. 女媧는 피조물들이 말을 할 수 있음에 행복해서 웃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말은 문자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말일 뿐이다. 의미없는 말을 끊임없이 재잘거리는 피조물 속에서 피곤함을 느끼는 女媧는, ‘중국에는 소리가 없다’ 라고 외치는 魯迅은 동패를 그리고 있다.

女媧는 피곤해 쉬는 도중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와 느낌에 정신을 차렸고, 하늘이 찢리고 산이 흘러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속에는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미 무언가에 싸여있었다. 그 작은 것들은 흰털로 몸을 감싸기도 했고, 쇠조각으로 몸을 싸기도 했다. 이

21) “伊一面撫弄他們，一面還是做，被做的都在伊的身邊打圈，但他們漸漸的走得遠，說得多了，伊也漸漸的懂不得，只覺得耳朵邊滿是嘈雜的嚷，嚷得頗有些昏迷。” 267쪽.

미 자신이 만들어냈던 당시의 모습은 없고 이미 서로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감추기 시작한 것이다. 미쁜 것은 피조물들이 이제 자신의 목소리로 이야기 한다는 것이다. 피조물들의 소리는 이제 말로서 배치되지만, 女媧는 불행히도 그것들이 내뿜는 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었다. 피조물들은 그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데만 급급하다. 소통되지 못하는 말, 의미파악이 되지 않는 말, 대화가 불가능한 말은 문자로서 존재하지 못했던 ‘Nga! Nga!’ , ‘Akon Agon’ 와 다르지 않다. 더구나 그것들은 이제 자신을 포장하고 쇠덩어리로 몸을 감싸서 다른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이 생겨버렸다. 심지어 쇠로 자기 몸을 감싸지 않았던 것들은 아무생각 없이 그저 자신의 말을 따라 하기에 급급하다.²²⁾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 사태는 급진전되었고 女媧는 그들의 입을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려던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이내 “어쨌든 수리부터 하자”는 實事求是의 방법을 강구한다.

『故事新編』속 이야기 저변에 흐르는 중요한 맥락중의 하나가 實事求是의 방법을 통한 문제해결이다. 「埋水」에 등장하는 禹임금은 현실감각에 맞지 않는 성현의 도리를 따라 치수해야 한다는 대관의 말을 단호히 거부하고 실상을 조사하고 사태를 파악하여 물을 통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관과 禹임금은 그 상징하는 바가 명확하여, 각기 수구세력과 개혁세력의 양자를 표방하고 있다. 魯迅은 여전히 전통이라는 미명에 휩싸여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비판을 던지고 있는 동시에, 현실을 窮究해야 그에 대한 명확한 대응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는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창조자 女媧는 현실을 궁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그는 그저 자기말만 하는 피조물들에게서 답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소통되지 않는 현실상황에서 女媧는 일단 하늘이 뚫리고 땅이 뒤집어지는 이 상황을 막아보고자 수리부터 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女媧는 원래 색의 하늘을 찾아주기 위해 새파란 돌을 쓰려다가 그것이 지상에 많지 않음을 알고 푸른 돌을

22) “伊料想他和包鐵片的那些是別一種，應該可以探出一些頭緒了，便問道：“那是怎麼一回事呢？”/“那是怎麼一回事啊？”他略一抬頭，說/“那剛才鬧出來的是？……”/“那剛才鬧出來的麼？……”/“是打仗罷？”伊沒有法，只好自己來猜測了。/“打仗罷？”然而他也問。”『故事新編·女媧』，271쪽.

찾았다. 사람들은 푸른 돌을 찾아 헤매는 女媧를 비난하고 구박했지만, 결국 그녀는 모든 돌로 하늘을 땀질할 수밖에 없었다. 하늘은 제 색깔을 찾지 못하고 분명 얼룩얼룩했을 것이다. 魯迅은 「補天」에서 유난스레 푸른색을 자주 등장시키고 있다. ‘푸른 돌(靑石頭)’, ‘순수하게 파란 돌(純靑石)’, ‘청죽으로 된 조각(靑竹片)’, ‘푸른 하늘(靑碧)’ 등은 모두 「鑄劍」에 등장하는 ‘푸른 검’의 이미지와 일견 맥이 닿아 보인다. ‘푸른 검’이 眉間尺의 복수를 寔之赦者에 의해 완성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된 것과 같이, 위의 푸른빛을 띠는 것들은 女媧가 하는 일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女媧가 하늘을 땀질 하는 이유는 창조자로서 지상에 존재하는 생명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피조물로 인해 느끼는 권태로움이나 허망함은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급박한 상황에 비길 것이 아니었다. 푸름이 드러내는 일련의 상징들은 피조물들의 가치와 존재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뒤집어서 창조자의 존재이유중 하나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女媧는 청죽으로 된 조각으로 자신의 발가락을 찌르는 작은 것이 여전히 현실감각과는 동떨어진 옛글을 아주 유창하게 읊조리는 것에 피조물과의 소통을 포기해 버린다. 그러나 그녀는 그 청죽으로 된 조각 속에 맺혀진 눈물 두 방울이 자기의 목소리로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소통이 가능한 울음소리를 내는 것을 분명하게 듣고 비로소 피조물과의 교감을 완성한다. 이에 그녀는 갈대장작을 태워 일어나는 불기둥으로 돌로 기운 하늘 사이를 붙인다. 이윽고 제각각의 색깔을 가졌던 돌들은 女媧가 붙였던 불로 인해 새파란 색으로 변할 수 있었고, 기력을 소진한 女媧는 창조자의 임무를 마친 후 죽어간다.

자신을 에워싸고 바라보는 피조물들의 시선은 중요하였고, 자신과 교감되거나 소통되지 못하는 피조물들 속에서 女媧는 그들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마침내 하늘을 제 색깔로 완전하게 땀질함으로써 그들과의 소통을 완성한 것처럼 보인다. 정신계 전사가 그러하고 영웅이 그러하듯이 창조자 女媧는 모든 것을 마치고 장렬하게 죽었다. 그러나 女媧가 죽은 후 그 후손들은 시체의 배에 균기를 꿋고 알아볼 수 없는 蝌蚪文字를 썼다가 ‘女媧씨의 창자’라고 고쳐 썼다. 蝌蚪文字도 현재에 소통할 수 없는 글자이고 ‘女媧씨의 창자’라는 말은 禁衛軍이 깃발을 꿋은 곳이 女媧의 배이기

때문에 쓴 글자이다. 즉 女媧가 하늘을 땀질했던 이야기는 온데간데없고, 단지 하나의 에피소드의 전락되어 버린다. 魯迅은 마지막에 산들을 조용한 곳으로 옮겨주어 女媧가 하늘을 땀질할 수 있게 했던 거북이들도 본래 女媧의 말을 알아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연히 고개를 끄덕인 것이고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것이라는 말을 한다. 女媧의 소통은 하늘을 땀질함으로써 완성되는 것 같았지만, 그 이후의 사람들로 인해 女媧는 전설 속의 한 인물로 소개되고 보여진다. 결국 소통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창조자를 그저 바라보고 구경하고만 있는 사람들, 영웅의 존재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은 불가능하다. 아이러니하게도 피조물과 凡人들의 존재이유가 되면서도 그들과 소통할 수 없는 현실이다. 「補天」에서 女媧는 피조물들과의 소통을 완성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소통은 완성되지도 않았고 도리어 그녀는 구경거리로 전락되었다. 魯迅은 女媧를 자신이 비판하고 있는 ‘罔’으로 만들어버렸다. 중국의 창조자 女媧도 ‘罔’에 다름 아니다.

2. ‘打罔’ - 막혔던 것을 통하게 하는 것

『故事新編·理水』는 治水를 통한 소통의 방법을 보여준다. 禹임금은 古來로 지켜왔던 治水의 방법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즉 물을 막았던 방법에서 물을 소통시키는 방법을 쓴 것이다. 그가 아버지가 썼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로운 방법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물을 막았던 방법이 현실적 감각에는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이전의 방법, 즉 ‘물을 막는’ 방법은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물을 소통’ 시키는 방법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²³⁾ “내가 산과 호수의 상태를 조사하고 백성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이미 실상을 다 꿰뚫어보고 난 후에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물을 소통’ 시키지 않고는 아니되오.”²⁴⁾라고 말하는 禹

23) “我經過查考，知道先前的方法：‘湮’，確是錯誤了。以後應該用‘導’！”『故事新編·理水』，297쪽.

24) “我要說的是我查了山澤的情形，定了百姓的意見，已經看透實情，打定主意，無論如何，非‘導’不可！”『故事新編·理水』，298쪽.

임금은 사물에 대한 조사와 實事求是를 통해 서로 통하게 하는 것만이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만들어 내고(‘做出來’) 있다.

소통은 통하게 해주고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 즉 오고 감이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다. 禹임금은 길들여진 소통의 구조를 바꿔 버렸다. 즉 古來로 막힘을 강조하고 있었던 중국의 구조를 통하게 함으로써 일대 혁신을 가져왔다. 어떤 곳에 울타리를 쳐놓고 자기의 영역임을 표시하고는 다른 영역과의 관계를 처음부터 차단해 버리고, 영역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과의 上下중법적인 틀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바깥 세상에 대한 지식과 견문이 없을뿐더러 전해 내려오는 전통과 인습을 답습하기 마련이다. 아버지가 막는 방법을 썼으면, 아들은 마땅히 막는 방법을 써야 한다. 여전히 하나의 圈을 만들고 사람들을 그 圈으로 가지런하게 띠를 두르려는 인습에 사람들은 으레껏 순종하게 마련이었다. 그러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였던 간에 그 圈에서 벗어나 그 圈을 깨버리고 둘러싸여진 공간을 마음대로 往來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어떻게든 圈밖에 존재하면서 막힌 무언가를 보아내고 제대로 말할 수 있다. 圈이 가지고 있는 의미 가운데 하나가 ‘전통의 방법이나 고정된 격식’ 25)임을 상기시켜 본다면, 이들의 행위는 전통에 대한 혁신에 다름 아니다. 바로 禹임금이 그러했고, 狂人 또한 그 연장선상에 서 있으며, 女媧는 圈을 형성했던 사람들에게 의해 대상으로 여겨졌지만 곧 일어나 하늘을 뿔뿔하고 사람들을 비로소 살게 해주었다. 이들은 모두 魯迅을 통해 그 현재적 의미가 되살아나고 있다.

魯迅은 무언가 만들어내는 인간형의 대표인물로 ‘女媧’, ‘寔之敖子’, ‘禹’를 등장시킨다.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상황을 개량하려는 의지적 인간을 보여준다.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인간형으로 말하면 ‘女媧’는 창조자로 등장함으로써 그 전형성을 가지고 있으며, ‘羿’는 전투대상의 상실에서 오는 일상의 낯설음을 표현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전투대상만 있으면 언제나 분기탱천할 수 있음 26)을 드러내고 있다. 현실적 개혁의지를 표현하는 그는 언제나 싸울

25) 『漢語大詞典』, 1993년 5월 제2차, 3권, 649쪽

26) 嫦娥가 달나라로 도망친 사실을 안 羿가 달을 향해 분노했던 것을 기억해 보라.

수 있는 의지가 분명하다. ‘禹’ 임금은 기존의 治水방법에 의문을 제기하고 상황에 대한 적절한 이해로 새로운 治水의 방법을 모색한다. 작품 전반에 깔린 實事求是의 사상 또한 기존의 현실적 감각에 맞지 않고 대의명분만 주장하는 현실적 판도에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인물들은 모두 말미에 가서 다시 圈을 형성한 사람들에 의해 구경의 대상으로 전락함으로써, 무언가를 만들어낸 후, 상황이 재역전되는 아이러니함을 보여준다. 「埋水」의 禹임금도 소통을 완성시킨 것 같으나, 女媧처럼 구경거리로 전락하고 그의 공적은 단지 이야기로 남겨져 비현실적인 것이 되어 버렸다. 인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治水의 공적도 없고, 그들을 위해 행했던 노력과 일련의 조사의 과정 또한 허구로 돌아갔다. 결국 禹임금 자신도 圈속에 편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IV. 나오며- ‘圈’ 에 복수

복수는 魯迅의 화두 중 하나였다. 『故事新編·鑄劍』 속의 ‘寔之放了’는 복수의 의미를 잘 말해주고 있는 인물로, 자신의 임무가 복수임을 알기 때문에 肩間尺의 생명을 받아 그를 대신해 복수할 수 있었던 인물이다. 『自言自語·古城』의 소년의 이미지와 통하는 그는 스스로 새로운 복수의 형상을 만들어내고 제대로 된 복수를 시도함으로써 魯迅의 현재적 상황과 의미를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寔之放了’는 도저한 복수를 성공시켰으나 이후에 복수한 사람과 복수당한 사람이 한데 얽혀져 그 존재조차 엉켜버리는 상황에 이른다. 아울러 肩間尺과 寔之放了의 머리는 사람들에게 구경의 대상물이 돼버린다. 무언가를 완성했을 때, 중국에서는 그때부터 다시 소멸의 시작임을 말해주는 듯 한 魯迅의 엇박자는 제대로 된 복수가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에 물음표를 던지게 만든다.

절대적 적막을 노래하고 있는 『野草』의 세계는 고통과 절망 그리고 그에 대한 복수로 착종되어있다. 그가 그러한 고통과 적막함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눈을 부릅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수의 일념 때문이었다. “

완전히 망각하여, 조금의 원한도 없는데, 무슨 용서의 말을 운운할 것인가? 원한이 없는데 용서한다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것일 뿐이다” 27) 고통과 원한을 기억하고 있어야 그에 대한 처절하고 정당한 복수가 가능하다. 혁명의 잊혀져감을 안타까워하는 魯迅의 詩「淡淡的血痕中」은 시간이라는 비겁한 존재로 인해 망각되어져 가는 모든 기억들을 상기시킨다.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혁명을 내친 자, 혁명을 억누른 자에 대한 도저한 복수심을 키워가기 위함이다. 「雜憶」을 보면 그가 얼마나 복수에 상기되어 있는지를 엿볼 수 있다.

…나에게는 아무래도 복수란 것이 그리 나쁜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복수란 누가 그것을 심판하고 어떻게 공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자문에 대해 곧바로 자답한다. - 자기가 심판하고 자기가 실행하는 것이다. …관용을 미덕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금방 다시 의문이 일어난다. - 그런 것은 비겁자가 생각해 낸 것이 아닐까? 보복할 용기가 없는 비겁자가, 그도 아니면 비겁한 악인이 생각해낸 것으로서 자기는 남에게 위해를 가하면서도 남의 보복을 받는 것은 두려워서 관용이라는 미명으로 기만하는 것이라고. …그러나 적어도 하나의 적은 필요하다. 그 때문에 애국자는 아무래도 1년이나 2년 걸러 한 번씩은 적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선동해야 한다. 28)

敵들을 향한 끝없는 복수심이 중국적 ‘圈’의 세계에 빗겨갈리 없다. 圈에 대한 魯迅의 처절한 복수는 『野草·復讎其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魯迅은 구경꾼으로 상징되는 중국인에게 더 이상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바(希望)가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게 해준다. 구경꾼들은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기대하고 있었을 터이나, 두 사람은 철저히 미동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서로 對峙만 하고 있는 채로 멈춰있다. 구경꾼들은 이내

27) “全然忘却，毫無怨恨，又有什麼寬恕之可言？無怨的恕，說謊罷了。”『野草·風箏』

28) “…我總覺得復讎是不足爲奇的，…報復，誰來裁判，怎能公平呢？便又立刻自答：自己裁判，自己執行；…有時也覺得寬恕是美德，但立刻也疑心這話是怯漢所發明，因爲他沒有報復的勇氣，或者都是卑怯的壞人所創造，因爲他貽害于人而怕人來報復，便騙以寬恕的美名…但怨敵總常有一個，因此每一兩年，愛國者總要鼓舞一番對於敵人的怨恨與憤怒。”『墳』，『魯迅全集』1권, 223쪽.

흩어져 돌아간다. 대치하고 있었던 두 사람도 더 이상 싸울 의지도 없이
고갈되어 가고 있었다. ‘더 이상 너희들이 바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아’
사람들은 이를 알고는 그냥 돌아서 버린다. 싸움의 무의미함을 알고 돌아
선 구경꾼들, 詩에서는 싸우려는 두 사람에게서도, 그 싸움을 보려는 구경
꾼에게서도, 그러한 무의미한 광경에 대해 의아해 하거나 싸우라고 소리
를 지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래, 그럴 거야. 우리가 언제
그런 싸움 보거나 했었어?’ 라고 체념한 듯 돌아서 버린 것이다.

체념한다는 것은 의식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합리적이지
못한 이 싸움과 대결하지 않는 것은 부조리한 세상에 눌러 자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삶의 부조리를 인식한다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지속시킬 수 있어야 한다. 지속시켜야 하는 이유는 내
가 그것에 대해 일생동안 反抗하기 위해서이다. 魯迅은 멍하게 바라보고
만 있는 중국인들의 기대를 깡그리 부서 버림으로써 그들에게 기막히게
복수하고 있다. 魯迅이 취하고 있는 이러한 복수의 모습은 삶을 무의미하
게 만드는 대상에 대한 반항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魯迅 스스로가 피가
낭자하고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칼부림을 묘사하지 않은 것도 反抗하지 않
는 중국의 인간군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魯迅全集』,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3년
 『魯迅小說全集』, 沈陽: 河南人民出版社: 1994.
 『漢語大詞典』, 1993년 5월 제2차
 王鳳陽 著, 『古辭辨』,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1993
 유중하, 『魯迅前期文學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3
 韓國中國現代文學學會 第7次 國際學術大會 論文集, 2001. 12월

中文概要

魯迅和疏通

金奉延

本論文的主要目的是考察魯迅在自己文學里按排的‘圈’的形象和‘打圈’的方式。‘圈’之原義是‘養畜之閑’（『說文解字』），‘養獸之所’（『漢語大詞典』），這個詞在魯迅文學里引伸為中國人構成的封閉的空間。‘圈’在作品里不但經常出現而且擴大空間，從鐵房被轉移到村里，再轉移到一個城，最終移到了國家。‘圈’是阻擋和關閉的空間，因此在‘圈’里的人被撫養和飼育。重要的是在‘圈’里的人不能自覺自己在這個‘圈’里，這就是魯迅從事文學的理由。換句話說，從來埋沒在中國傳統的惡材，中國人不能給人們看發展的萌芽，他們被禁閉在沒有窗戶的鐵房，在食人的村里，在偉大而可詛咒的長城。所謂‘圈’這樣擴大讓中國人窒息。

對話就是魯迅說的打破‘圈’的方法之一。對話應該有對方，使在‘圈’里不認知他者的人認定他者的存在，同時再次認識自己。打圈的另一個方法是‘疏通’。疏通有‘沖破關閉使流’的含意。魯迅在鐵房作窗戶使空氣流而呼吸，在「狂人日記」救沒有食人的孩子，不給長城添新磚使風過去，在『故事新編·理水』改變治水的方法使水向下流。通過這兩個打圈方式，魯迅到底表現出來古來被掩蓋‘大一統’思想沒有感覺改革和變化的中國之陳舊的精神。

核心語：圈，疏通，對話，打圈

다형 30주기 기념 세미나

다형 김현승의 삶과 문학

- 김현승의 인간적인 면모와 시세계 / 권영진
- 관념시에서의 구체성의 자리 / 황현산
- 신앙과 고독과의 갈등 / 森田進
- 인류적 보편성과 개인적 기질의 분리문제 / 김윤식
- 대쪽보다 더 단단했던 대추씨 선생 / 김광일



특집 다형기념세미나

이 특집은 다형 김현승 시인 30주기 기념사업으로 일환으로 본 연구소가 개최한 기념 세미나 <다형 김현승의 삶과 문학>에서 발표된 4편의 글과 기고된 1편의 글로 엮었다. 이 특집을 엮음에 즈음하여, 본 연구소의 다형 김현승 30주기 기념사업의 기획 취지와 사업의 개요를 정리해둔다.

1. 기획 취지

평양 숭실에서 공부하였고, 서울 숭실에서 교편을 잡았던 다형 김현승은 우리 대학의 정체성을 글과 삶으로 체현한 모범적 숭실인이다. 기독교 정신을 시로 승화시켜 문단의 큰 기둥이 되었던 그의 시업(詩業)을 기리기 위해 숭실대학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간의 사업이 주로 교내행사로 한정되어 대외적으로 그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미흡했다. 따라서 다형 30주기를 맞는 금년은 그간의 기념사업을 계승, 보완하여 다형의 시업과 숭실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적기라 판단된다. 우리 대학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문화적 인물로 다형을 부각시키는 것은 그간 첨단과학의 선두를 표방했던 숭실인 상에 문화적 아이콘을 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연구소에서 학술 세미나와 연계하여 다형 기념사업을 활성화시킴으로서, 한 손에는 컴퓨터, 또 한 손에는 시집을 든 대학생, 이른바 과학과 문화를 아우르는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대학상을 제시함으로써 숭실대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2. 사업계획

기념사업은 김현승 문학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와 인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 다형과 숭실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또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

는 방안도 모색한다. 사업은 첫째 다형문학전집과 연구서 발간, 둘째 월간, 계간 등 문예지의 특집 기획, 셋째 30주기 기념 세미나 개최 등이다. 우리의 이런 사업은 궁극적으로는 다형문학상의 제정과 실시로 확대 재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3. 2005년도 사업

(1) 정본 시 전집 《김현승 시전집》 발간

김인섭 교수의 편집과 해제로 미발표 시 30여 편을 발굴하여 총 300여 편을 수록, 원본에 가장 충실하게 편집하였다. 2005년 11월, 민음사 발행.

(2) 문예지 특집

《시인》 제4권(2005년 11월, 시인사) 213-327쪽
특집 <시인 김현승>

(3) 30주기 기념 세미나

주제 : 다형 김현승의 삶과 문학

때와 곳 : 2005년 11월 11일, 아트선재센터 아트홀

발표자 : 권영진·황현산·김윤식 교수, 김광일 기자.

모리타 스스무 교수(기고)

다형시 낭송 : 이성부·천양희·최승호·유안진 시인